

Mediating Effects of Playfulnes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Self-Efficacy, Emotional Expression, and Kindergarten Adjustment¹⁾

Kang, Su-Yeon (Dong-A University, Doctoral Student)
Cho, Gyu-Pan²⁾ (Dong-A University, Professor)

< 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emotional expression, playfulness, and kindergarten adjustment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playfulness. For the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that targeted the children (4 to 5-year-old) in B city and 182 children participated in the questionnaire surve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alyzed and measured the data for the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o test the mediating effects of playfulness. The results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self-efficacy, emotional expression, playfulness and kindergarten adjustment. Playfulness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emotional expression, and kindergarten adjustment. Consequently, these results suggest the development of that kindergarten adjustment through the self-efficacy, emotional expression and playfulness through various provided programs related to play-based activities for children and training programs for teachers and parents.

Key Words : Self-Efficacy, emotional expression, playfulness, kindergarten adjustment

1)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research grants from Dong-A University.

2) Corresponding Author: Cho, Gyu-Pan, Professor, Dong-A University, 37 Nakdong-Daero 550 Beon-Gil, Saha-Gu, Busan, Korea, 49315 / E-mail: gyupanc@dau.ac.kr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정서표현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매개효과¹⁾

강수연 (동아대학교, 박사과정생)

조규판²⁾ (동아대학교, 교수)

< 요약 >

본 연구는 유아의 자기효능감, 정서표현성, 놀이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놀이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B지역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만 4, 5세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유아의 자기효능감은 연구자가 각 기관을 방문하여 대상 유아에게 개별 검사를 진행하였고, 정서표현성과 놀이성, 유아교육기관 적응은 그들의 담임교사를 통한 설문조사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SPSS 프로그램 Ver.27을 활용하여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놀이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정서표현성과 놀이성 그리고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놀이성이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정서표현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정서표현성은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놀이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의 바람직한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자기효능감과 긍정적인 정서표현성, 놀이성 향상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놀이중심 프로그램의 제공과 교사 연수 활성화 및 가정과의 협력 등 구체적인 방법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자기효능감, 정서표현성, 놀이성, 유아교육기관 적응

1) 본 논문은 동아대학교의 학술지원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2) 교신저자: 조규판, 교수, (49315) 부산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동아대학교 / E-mail: gyupanc@dau.ac.kr
논문투고일자: 2022. 5. 14 / 심사일자: 2022. 6. 3 / 게재확정일자: 2022. 6. 16

I. 서론

2019년 12월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으로 개인과 공동체는 모두 유례없는 변화와 불안을 겪었으며, 인류의 생활 방식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예측할 수 없던 코로나19의 유행과 약 2년간 지속된 팬데믹 상황으로 격변하는 환경에 대한 인간의 적응능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적응이란 주변 환경에 자신을 동화시키거나 혹은 자신의 욕구를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말하며(Ladd & Price, 1987; Lazarus, 1976), 개인의 필요뿐만 아니라 환경의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키는 능력도 포함된다(Jewsuwan et al., 1993; Kim & Shin, 2017). 이러한 적응능력은 유아가 가정을 떠나 낯선 환경인 유아교육기관을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발달한다.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응이란 유아가 새롭게 마주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에 점점 익숙해지고, 유아교육기관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활하며, 주변 환경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나 행동양식을 적절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유아는 이러한 기관 적응 과정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맥락을 경험하면서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인지적·정서적 능력의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즉, 유아가 새로운 환경인 유아교육기관에 잘 적응한다는 것은 자신을 포함한 주변 환경을 신뢰하고 능동적으로 이를 탐색하여 건강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전인적인 발달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Song, 2004). 특히 최근에는 가족구조의 변화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 저출산 문제의 심화 등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증가하여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유아의 수가 증가하고, 이용 연령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로 인해 과거에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사회화 과정을 이제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주로 담당하게 되면서 유아교육기관 적응이 더욱 중요해졌다.

유아교육기관 적응은 유아기뿐만 아니라 성장 이후 유아의 심리적·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적응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Park & Chung, 2018). 유아교육기관에 잘 적응한 유아는 집단생활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게 되므로 학교생활에서도 높은 적응력을 보이며,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 및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놀이와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학업성취에 필요한 태도를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학업수행에도 영향을 미친다(Moon, 2016). 반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적응 경험은 유아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내적·외적 문제를 겪을 수 있으며, 이는 교육기관에 대한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자신감을 떨어뜨려 학교 생활과 학업성취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집단생활에 대한 기피현상과 사회생활 부

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Choi & Song, 2013; Song, 2004; Yeom & Moon, 2008). 무상보육 실시와 함께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유아가 증가하면서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유아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Kim & Park, 2019)의 관점에서 볼 때, 유아교육기관 적응문제는 유아에게 중요한 발달 과업이자 유아기 이후의 사회적 적응과도 관련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 및 효능감, 가족건강성, 부모의 정서표현성 및 의사소통 능력 등 같은 가족 환경 요인과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 교사-유아 관계, 부모-교사 관계 등과 같은 유아교육기관 환경 요인이 연구되어 왔으며, 유아교육기관 적응과 높은 정적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Han, 2020; Kim & Jung, 2017; Kim, 2015; Kim & Kim, 2012; Kim et al., 2008; Moon, 2016; Park, 2010; Park, 2011; Song & Choi, 2009; Song & Park, 2019; Yun & Lee, 2018). 또한 유아 개인적 요인으로는 연령과 성별, 기질, 인지능력 및 인성 등이 있으며, 특히, 또래유능성과 자기조절능력, 정서지능 등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의미 있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 Gwag, 2017; Ha, 2017; Hwang, 2011; Jang, 2018; Jin et al., 2015; Kang, 2007; Park, 2012). 최근에는 유아의 잠재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유아의 성격 강점과 행복감, 놀이성, 자기효능감 및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등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Ahn & Lim, 2010; Cha, 2001; Choi & Song, 2013; Go & Kim, 2014; Kang, 2015; Kim, 2006; Kim et al., 2016; Park, 2015; Park & Chung, 2018). 하지만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아동의 학교 생활 적응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며, 유아의 자기효능감은 부모 혹은 담임교사를 통한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편이므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자기효능감 변인의 탐색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유아의 자기효능감은 유아가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지 판단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된다(Bandura, 1977; Han & Han, 2009). 자기효능감이 높은 유아는 어려움에 처해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상황에 대처하여 성공적인 경험을 축적해 나간다. 이러한 성공 경험의 축적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유아일수록 놀이나 활동에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며, 또래와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안정적으로 적응해 나간다.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ha(2001)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유아는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도 능동적인 태도로 대처하므로 유아교육기관이나 사회생활에 잘 적응한다고 보았다. 또한 Kim(2006)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유아는 또래와 협동적이며 기관의 활동에도 주도적으로 참

여하여 인기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연구는 유아의 자기효능감의 발달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유아가 기관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바람직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며 적응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아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사회적 맥락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정서를 나타내는 정서표현성도 유아의 안정적인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서표현은 유아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반응으로, 유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해 보고, 상대의 반응을 토대로 정서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감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인식이 가능해진다(Oh, 2017; Zeman & Shipman, 1997). 정서표현의 경험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억제 및 강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서의 유형이나 빈도에 따라 개인 성향을 가진 정서표현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 정서표현성은 외부 환경에 따라 조절을 받을 수 있고,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표현했을 때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 이후의 정서표현성이 달라지기도 하며, 특히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정서반응을 조절하도록 요구받기도 한다(Lee, 2011; Shiota et al., 2004). 또한 정서표현성은 정서지능 또는 정서조절능력의 하위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유아기 발달에 있어서 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Denham et al., 2003; Song & Choi, 2009; Song, 2019).

정서표현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아의 정서 관련 특성은 유아의 정서지능, 정서조절능력과 관련한 연구가 많았고, 정서표현성의 경우 주로 부모나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유아교육기관 적응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가 대다수였다. Kang(2007)은 정서지능이 높은 유아는 자신의 감정을 잘 알고 이를 다양한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격적이고 또래에게 인기가 많으며, 이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응을 용이하게 한다고 하였다. 반면 Song(2004)은 정서지능이 덜 발달된 유아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나 이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미숙하므로, 낮은 환경에서 정서적 안정을 찾지 못하거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부적응 문제를 동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Jin et al.(2015)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사회적 맥락에 맞게 표현하는 정서조절능력이 발달한 유아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응도 더 잘한다고 하였으며, Choi & Kim(2015)은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유아는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하여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정서조절능력이 덜 발달된 유아는 대인관계에서 상호작용이 원만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정서적 경험의 기회가 줄어들어 사회적 기술 습득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유아의 정서표현성도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 될 것이다.

최근 개정된 2019 개정 누리과정과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서 모두 ‘놀이 중심’이라는 공통점을 보이듯이 놀이는 유아에게 삶의 본질이며(Hong & Kwon, 2021), 놀이 속에서 유아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적용해보기도 하고, 새롭게 지식을 구성하기도 한다(Ahmad et al., 2016; Jung, 2021). 유아는 삶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얻고, 전인발달을 이루어 나간다. 또한 놀이하는 과정 속에서 또래나 교사 등 타인과 상호작용을 나누면서 집단생활에 필요한 태도를 형성하여 성공적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 적응해 나갈 수 있다(Hwang, 2011; Jang, 2018). 이때 놀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유아가 놀이에 대해 가지는 개인적, 심리적 특성이나 태도에서 나오는 놀이성으로, 유아의 놀이를 놀이답게 만들어주는 잠재적인 성향을 의미한다(Barnett, 1991; Dewey, 1933; Lee, 2020). 이러한 유아의 놀이성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주요 일과인 놀이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유아교육기관 적응과도 관련이 있다.

유아의 놀이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ang(2015)은 놀이성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가 자발성, 동기, 긍정적 정서들을 향상시켜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놀이할 수 있도록 해주며, 또래와 잘 어울리고 서로 배려하면서 만족스러운 기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였으며, Ahn & Lim(2010)은 유아의 놀이성, 유아교육기관 적응 및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통해 놀이성이 높은 유아가 대체로 기관 적응을 더 잘한다고 밝히면서 특히 유아의 놀이성 중 사회적 자발성이 기관 적응과 더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를 통해 놀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기관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유아일수록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더 잘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Choi & Park(2014)은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있어서 놀이성은 유아가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인지적으로 동화시켜 만족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내적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기관 적응을 도와준다고 하였고, Jang(2018)의 연구에서도 놀이성이 높은 유아는 흥미를 가지고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보다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맺음으로써 기관 생활에서 더 큰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며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유아의 놀이성은 자기효능감, 정서표현성과의 관련성도 예측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Kwon(2009)은 자기효능감과 놀이성이 정적상관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Jo et al.(2016)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은 유아는 놀이상황에서 어려운 과제가 생기면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여 과제를 해결해 나가지만, 자기효능감이 낮은 유아는 쉽게 포기하거나 아예 도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유아의 정서표현성과 놀이성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부족한 편으로 유아의 정서발달과 놀이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Kim(2013)은 정서적으로 안정된 유아가 불안정한 유아보다 놀이를 더 잘한다고 하였다. Yu(2006)의 연구에서도 유아의 정서지능의 발달 수준에 따라 놀

이성이 차이가 있다고 보았으며, Choi(2007)는 정서지능의 하위변인인 자기인식표현 능력이 높으면 놀이에 있어 유아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유아는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놀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를 토대로 놀이성을 더욱 발달시켜 나간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정서표현성은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놀이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동안 유아교육기관 적응이 유아기 발달에서 중요한 역할로 강조됨에 따라 관련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주로 부모나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유아의 개인 내적 요인이나 자아 관련 변인과의 관계 및 영향에 대한 연구는 각 변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기효능감, 정서표현성, 놀이성,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자기효능감 및 정서표현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의 안정적인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 부모교육 및 유아 놀이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유아의 자기효능감, 정서표현성, 놀이성 및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둘째,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셋째, 유아의 정서표현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정서표현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지역에 소재한 사립유치원(2곳)과 어린이집(국·공립 2곳, 민간 1곳)에 재원 중인 만 4, 5세 유아 208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수집에 있어서 유아의 자기효능감은 연구자가 직접 각 기관을 방문하여 대상 유아에게 개별 검사를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정서표현성과 놀이성, 유아교육기관 적응은 연구대상 유아의 담임교사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각 척도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유아와 교사의 격리기간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평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중 결측치 26부를 제외한 총 182명(만 4세 72명, 만 5세 110명)의 설문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가.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Jeon(1996)의 유아의 자기효능감 검사(Young Children's Self-Efficacy Scale: YCSES)를 사용하였다. 연구자와 유아 간의 개별면접으로 진행되는 자기효능감 척도는 3개 하위요인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 문항을 유아에게 읽어준 뒤, 크기가 다른 다섯 개의 동그라미가 하나씩 그려진 그림카드를 제시하며 유아의 생각을 물어보고, 유아의 반응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검사에 앞서 사전검사를 통해 검사방식에 대한 유아의 이해정도를 확인한 후 진행하였다. 반응양식은 Likert 5점 척도로 유아의 반응 정도에 따라 채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표 1>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 α
인지적 영역	1, 2, 4, 6, 10, 11, 13, 21, 25	9	.78
사회·정서적 영역	3, 7, 9, 12, 15, 16, 19, 23, 24	9	.83
신체적 영역	5, 8, 14, 17, 18, 20, 22	7	.87
전 체		25	.91

나. 정서표현성 척도

정서표현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King & Emmons(1990)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검사인 정서표현성 질문지(The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EEQ)를 Ha(1997)가 번안하고 Park(2010)이 교사나 부모가 관찰을 통해 평정할 수 있도록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서

표현성 척도는 3개 하위요인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응양식은 Likert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를 더 잘 표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표현성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정서표현성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 α
친밀한 정서표현	1, 8*, 9, 13*, 14	5	.87
긍정적 정서표현	2, 3, 4, 5, 10, 11, 12*	7	.86
부정적 정서표현	6, 7, 15, 16	4	.85
전 체		16	.94

* 표시 문항은 역채점 문항임

다. 놀이성 척도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해 Lieberman(1965)이 제시한 놀이성 정의를 토대로 Barnett(1991)이 개발한 유아용 놀이성 척도(Children's Playfulness Scale)를 Kim(1995)이 번안·수정한 유아 놀이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놀이성 척도는 5개 하위요인 총 25문항으로 반응양식은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담임교사가 유아의 놀이행동을 관찰하고 평소 유아의 모습과 일치되는 정도에 따라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놀이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놀이성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놀이성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 α
신체적 자발성	1, 2, 3, 4,	4	.86
사회적 자발성	5, 6, 7, 8, 9	5	.88
인지적 자발성	10, 11, 12, 13, 14, 20	6	.81
즐거움의 표현	15, 16, 17, 18, 19	5	.84
유머감각	21, 22, 23, 24, 25	5	.79
전 체		25	.93

라. 유아교육기관 적응 척도

유아교육기관 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Jewsuwan et al.(1993)이 개발한 유아교육기관 적응 질문지(The 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 PAQ)를 Kim(201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유아교육기관 적응 척도는 5개 하위요인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응양식은 Likert 5점 척도로 총점이 높을수록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교육기관 적응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표 4> 유아교육기관 적응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 α
신체적 자발성	1, 2, 3, 4,	4	.86
사회적 자발성	5, 6, 7, 8, 9	5	.88
인지적 자발성	10, 11, 12, 13, 14, 20	6	.81
즐거움의 표현	15, 16, 17, 18, 19	5	.84
유머감각	21, 22, 23, 24, 25	5	.79
전 체		25	.93

3.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 Ver.27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유아의 자기효능감, 정서표현성, 놀이성,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정서표현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제안한 세 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obel test를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유아의 자기효능감, 정서표현성, 놀이성,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

유아의 자기효능감, 정서표현성, 놀이성,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유아의 자기효능감, 정서표현성, 놀이성,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상관

	자기효능감	정서표현성	놀이성	유아교육기관 적응
자기효능감	1.000			
정서표현성	.515**	1.000		
놀이성	.521**	.599**	1.000	
유아교육기관 적응	.563**	.618**	.833**	1.000
<i>M</i>	102.890	76.764	101.176	112.747
<i>SD</i>	9.025	14.845	11.854	12.508

** $p < .01$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정서표현성과 놀이성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에서 자기효능감과 놀이성($r=.521, p<.01$), 정서표현성과 놀이성($r=.599, p<.01$)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정서표현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자기효능감과 유아교육기관 적응($r=.563, p<.01$)과 정서표현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r=.618, p<.01$)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놀이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r=.833, p<.01$)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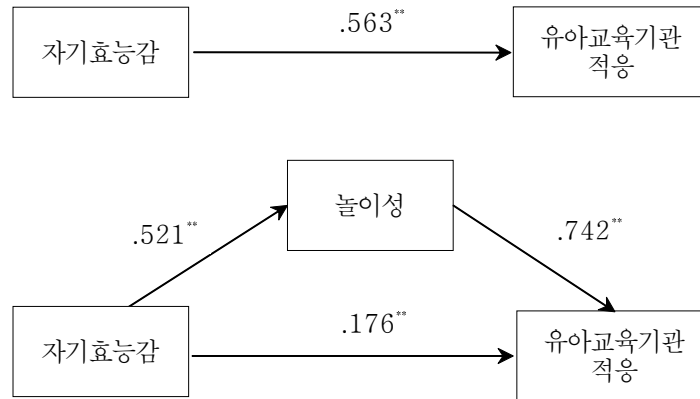
2.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매개효과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변인 간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Baron & Kenny(1986)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것이 <표 6>이며, 이를 도식화 한 것이 [그림 1]이다.

<표 6>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	변인	B	β	R^2	<i>F</i>	공차	VIF
단계 1 (독립 → 매개)	자기효능감 → 놀이성	.685	.521**	.272	67.151**	1.000	1.000
단계 2 (독립 → 종속)	자기효능감 → 유아교육기관 적응	.780	.563**	.317	83.361**	1.000	1.000
단계 3 (독립·매개 → 종속)	자기효능감 → 유아교육기관 적응 놀이성 → 유아교육기관 적응	.244 .783	.176** .742**	.717	226.858**	.728	1.373

** $p < .01$



[그림 1]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매개효과 검증

1단계에서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놀이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521, p<.01$), 2단계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563, p<.01$). 3단계에서 자기효능감과 놀이성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독립변인인 자기효능감이 종속변인인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eta=.176, p<.01$), 독립변인인 자기효능감이 종속변인인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단계보다 감소하여($\beta=.563 \rightarrow \beta=.176$)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값이 7.263($p<.001$)로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부분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분석의 분산팽창계수(VIF)는 1~1.373로 10 이하였으며, 공차한계는 .1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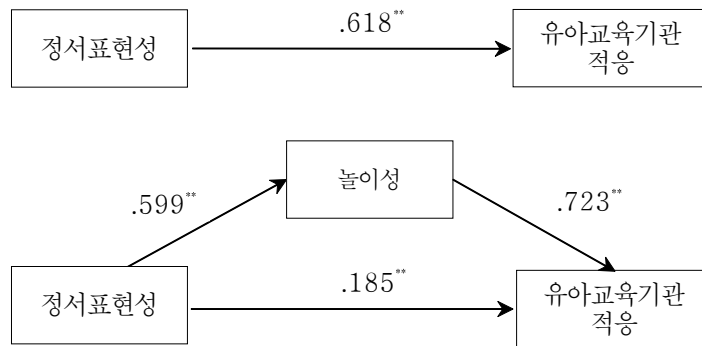
3. 유아의 정서표현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매개효과

Baron & Kenny(1986)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로 유아의 정서표현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것이 <표 7>이며, 이를 도식화한 것이 [그림 2]이다.

<표 7>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	변인	B	β	R^2	F	공차	VIF
단계 1 (독립 → 매개)	정서표현성 → 놀이성	.478	.599**	.359	100.856**	1.000	1.000
단계 2 (독립 → 종속)	정서표현성 → 유아교육기관 적응	.521	.618**	.382	111.150**	1.000	1.000
단계 3 (독립·매개 → 종속)	정서표현성 → 유아교육기관 적응	.156	.185**	.716	226.107**	.641	1.560
	놀이성 → 유아교육기관 적응	.763	.723**				

** $p < .01$



[그림 2] 유아의 정서표현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매개효과 검증

1단계에서 유아의 정서표현성이 놀이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599, p < .01$), 2단계에서도 정서표현성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618, p < .01$). 3단계에서 정서표현성과 놀이성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독립변인인 정서표현성이 종속변인인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eta=.185, p < .01$), 독립변인인 정서표현성이 종속변인인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단계보다 감소하여($\beta=.618 \rightarrow \beta=.185$) 유아의 정서표현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값이 8.238($p < .001$)로 유아의 정서표현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부분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분석의 분산팽창계수(VIF)는 1~1.560로 10 이하였으며, 공차한계는 .1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기효능감, 정서표현성, 놀이성 및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정서표현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자기효능감, 정서표현성, 놀이성 및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에는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정서표현성,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정서표현성이 높을수록 유아가 기관에 더 잘 적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유아는 성공의 경험이 많으므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토대로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도 더 유연하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응도 더 잘한다고 본 Cha(2001)와 자기효능감이 발달한 유아일수록 또래와 활발한 상호작용을 나누며 유아교육기관의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간다고 밝힌 Kim(2006)의 연구결과와 연결된다. 더불어 정서표현성이 높은 유아는 자신의 기분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며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므로 기관 적응을 수월하게 한다고 보고한 Kang(2007)과 Jin et al.(201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사회적 반응을 충분히 학습하지 못한 유아는 새로운 환경인 유아교육기관에서 심하게 불안감을 느끼거나 대인관계에서 공격성을 보이는 등 부적응 행동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Choi & Kim(2015)과 Song(2004)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이를 통해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정서표현성과 바람직한 유아교육기관 적응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의 놀이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도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놀이성이 유아의 창의성, 자발성 등을 향상시키고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응을 용이하게 한다고 밝힌 Kang(2015)의 연구결과와, 놀이성 발달이 유아에게 내적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Choi & Park(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놀이성이 높은 유아는 기관 내에서 놀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한다고 한 Ahn & Lim(2010), Jang(201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즉, 놀이성이 긍정적인 유아교육기관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자기효능감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놀이성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이때 놀이성이 매개역할을 하여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유아의 자기효능감의 발달과 놀이성 향상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 Cha(2001), Choi & Park(2014), Kang(2015), Kim(2006)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유아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으며 문제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성취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유아의 자기효능감은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며, 이 과정에서 놀이성이 발달한 유아일수록 자발적으로 놀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더 높고, 축적된 놀이 경험에서 얻은 문제해결능력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응도 더 잘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정서표현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놀이성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유아의 정서표현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이때 놀이성이 매개역할을 하여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의 정서표현성, 유아교육기관 적응 및 놀이성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유아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성과 놀이성의 발달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밝힌 Ahn & Lim(2010), Choi & Kim(2015), Jang(2018)과 Song(200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즉, 정서표현성이 높은 유아는 자신의 정서를 관리하고 타인의 감정에 적절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이러한 관계를 통해 유아는 낯선 환경인 유아교육기관에 적응하는 동안 또래나 교사에게서 정서적 지지와 응원을 얻음으로써 편안함을 느끼며 안정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놀이성이 높은 유아일수록 유아교육기관의 놀이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또래와 어울리고 놀이하는 경험을 통해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며 잘 적응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아가 자신의 흥미와 수준에 따라 능동적으로 행동하며, 문제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하는 자기효능감의 발달과 긍정적인 정서발달을 통해 또래 및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정서표현성의 발달은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놀이성은 유아가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유아교육기관의 환경을 탐색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하며, 놀이하는 과정을 통해 낯선 환경에서 겪는 유아의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또래나 교사와 상호작용하며 긍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도와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유아의 바람직한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위해서는 낮설고 불안한 상황에서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쉽게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찾아서 노력하려는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잘 관리하고 표현하는 능력인 정서표현성을 길러 새로운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주변의 타인을 신뢰하며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심리적·물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놀이성 발달을 위한 놀이 중심의 체계적인 유아교육기관 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아교육현장에서는 유아의 역량을 믿고 유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놀이환경을 구성하여야 하며, 교사는 각 유아가 가진 놀이 특성을 충분히 관찰하여 적절한 때에 교육적 개입 및 상호작용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의미 있는 놀이경험을 통해 유아의 놀이성을 발달 시키기 위해서는 교사가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교사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도 유아기 놀이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고, 유아의 놀이를 존중해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부모교육프로그램 및 상담을 비롯한 기관-가정의 연계로 협력해 나간다면 유아의 바람직한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금보다 더 불확실하고 변화무쌍하게 다가올 미래사회에서 유아의 성공적인 유아교육기관 적응은 유아의 삶에서 계속될 사회·정서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References

- Ahmad, S., Ch, A. H., Batool, A., Sittar, K., & Malik, M. (2016). Play and cognitive development: Formal operational perspective of Piaget' s theory. *Journal of Education and Practice*, 7(28), 72-79.
- Ahn, H. J., & Lim, Y. J. (2010). Children' s playfulness in relation to preschool adjustment and behavior problem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2), 53-68. ㉞ 국문: 안효진, 임연진(2010). 유아의 놀이성, 적응, 그리고 문제행동과의 관계성 연구. *아동학회지*, 31(2), 53-68.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https://doi.org/10.1037/0033-295X.84.2.191>
- Barnett, L. A. (1991). The playful child: Measurement of a disposition to play. *Play & Culture*, 4(1), 51-74.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Cha, I. S. (2001). *An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sociality and their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 s thesi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㉞ 국문: 차인수(2001). *자기효능감과 사회성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분석*.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Choi, H. J., & Gwag, H. M. (2017). The influence of children' s emotional control skills and social competence on adaptation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s: with emphasis on gender and age difference.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2(3), 145-168. ㉞ 국문: 최혜진, 광효민(2017).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사회적 유능성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별 및 연령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22(3), 145-168.
- Choi, H. J., & Kim, S. Y. (2015). Effects of young children' s self-regulation and empathic ability on interpersonal competence in relationship formation: The mediating effect of empathic ability.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0(5), 323-346. ㉞ 국문: 최혜진, 김선영(2015).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공감능력이 대인관계형성 능력에 미치는 영향-공감능력의 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20(5), 323-346.
- Choi, M. S., & Park, J. Y. (2014).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big five factor personality inventory for young childre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3(3), 281-299. ㉞ 국

- 문: 최미숙, 박지영(2014). 유아용 5요인(Big Five) 성격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 연구**, 33(3), 281-299.
- Choi, M. S., & Song, S. O. (2013).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s playfulness on their self-regulation and adjustment to child care center.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22(2), 277-292. 국문: 최미숙, 송순옥(2013). 유아의 놀이성이 자기조절능력 및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아동교육**, 22(2), 277-292.
- Choi, O. H. (2007). *The relation between children's playfulness and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국문: 최옥현(2007). **유아의 놀이성과 정서지능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Cole, P. M., Martin, S. E., & Dennis, T. A. (2004). Emotion regulation as a scientific construct: Methodological challenges and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research. *Child Development*, 75(2), 317-333.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4.00673.x>
- Coplan, R. J., & Rubin, K. H. (1998). Exploring and assessing non-social play in the preschool: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reschool play behavior scale. *Social Development*, 7(1), 72-91. <https://doi.org/10.1111/1467-9507.00052>
- Daniels, D. H. (2014). Children's affective orientations in preschool and their initial adjustment to kindergarten. *Psychology in the Schools*, 51(3), 256-272. <https://doi.org/10.1002/pits.21748>
- Denham, S. A., Blair, K. A., DeMulder, E., Levitas, J., Sawyer, K., Auerbach-Major, S., & Queenan, P. (2003). Preschool emotional competence: Pathway to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74(1), 238-256. <https://doi.org/10.1111/1467-8624.00533>
- Dewey, J. (1933). *How we think*. Heath and Company.
- Go, H., & Kim, S. M. (2014). The relations amo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kindergarten adaptation and happiness.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21(4), 115-136. 국문: 고현, 김성미(2014). 유아 정서지능, 유치원 적응, 유아행복감 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1(4), 115-136.
- Ha, J. (1997). *The effect of emotional expressivenes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on depression: Integrative study on human's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국문: 하정(1997). **정서표현 성향과 스트레스 평가 및 대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Ha, S. J. (2017).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ir adaptation to life in kindergartens, which are children's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24(1), 109-132. 국문: 하수정(2017). 유아 정서지능과 유아의 교육기관인 유치원 생활적응과의 관계. **공공정책연구**, 24(1), 109-132.
- Han, M. K., & Han, Y. K. (2009). The effects of for self-leadership program integrated with art

- activities on young children's self-leadership and self-efficacy.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13(3), 5-31. ㉞ 국문: 한민경, 한윤경(2009). 미술 활동을 통합한 유아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이 유아의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3(3), 5-31.
- Han, S. H. (2020). *The relative influence of infant self-regulation on the adaptation of infant education institutions and the positive attitude of parents and teacher-child inter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㉞ 국문: 한수희(2020).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에 대한 유아 자기조절력 및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상대적 영향력.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 Hong, H. M., & Kwon, H. J. (2021). The effect of mothers' play participation with young children on play beliefs.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1(3), 145-165. <http://dx.doi.org/10.34226/gcl.2021.11.3.145> ㉞ 국문: 홍현명, 권혜진(2021).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놀이참여가 놀이신념에 미치는 영향.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1(3), 145-165.
- Hwang, Y. S.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aptation, play characteristics and self-regulation by teacher's evalu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5(4), 99-116. ㉞ 국문: 황윤세(2011). 유아의 놀이특성과 자기조절력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5(4), 99-116.
- Jang, Y. S. (2018).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young children's playfulness, peer competence, and kindergarten adjustment. *The Journal of Education*, 38(4), 203-222. <http://dx.doi.org/10.25020/je.2018.38.4.203> ㉞ 국문: 장영숙(2018). 유아의 놀이성, 또래유능성, 유치원 적응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논총*, 38(4), 203-222.
- Jeon, I. O. (1996). The effect of teacher's educational beliefs and self-efficacy on children's self-efficacy. *Journal of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22(4), 273-291. ㉞ 국문: 전인옥(1996). 교사의 교육신념과 자아효능감이 유아의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22(4), 483-528.
- Jewswan, R, Luster, T., & Kostelink, M. (1993).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perceptions of temperament and children's adjustment to pre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1), 35-51. [https://doi.org/10.1016/s0885-2006\(05\)80097-3](https://doi.org/10.1016/s0885-2006(05)80097-3)
- Jin, Q., Lee, H. R., & Chung, H. C. (2015). Relationships among parents' emotion-related socialization behaviors,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on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Child Education*, 24(2), 123-144. ㉞ 국문: 김청, 이효람, 정정희(2015).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 *아동교육*, 24(2), 123-144.

- Jo, J. O., Kim. Y. Y., & Na, J. (2016). Exploration of influential self-related variables (self-regulation, self-efficacy, self-esteem) for the playfulness of preschoolers.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25*(1), 261-276. ☞ 국문: 조준오, 김영연, 나정(2016). 유아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기조절력이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탐색. *아동교육, 25*(1), 261-276.
- Jung, J. H. (2021). An analysis on cognitive play behavior related variables of young children: Cognitive ability, conflict resolution ability, motor ability, and achievement motivation.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1*(4), 1-25. <http://dx.doi.org/10.34226/gcl.2021.11.4.1> ☞ 국문: 정진화(2021). 유아의 인지적 놀이행동과 인지능력, 갈등해결능력, 운동능력, 성취동기 간의 관계 분석.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1*(4), 1-25.
- Kang, M. J. (2015). The effects of playfulness on child's preschool adjustment: The mediating effect of teacher-child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22*(3), 271-290. ☞ 국문: 강민정(2015).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사-유아 매개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2*(3), 271-290.
- Kang, S. M. (2007). *The relation between the 3-year-ol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ir adjustment to kindergart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국문: 강세미(2007). 만3세 유아의 정서지능과 유치원 적응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Kim, E. H., & Jung, S. S. (2017). The effect of child's temperament,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and family strengths recognized by a nursing teacher on the adjustment to preschool: Through teacher-child relationships as mediated effect. *Journal of Social Welfare Management, 4*(1), 47-74. ☞ 국문: 김은하, 정신섭(2017). 보육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족건강성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사-유아관계를 매개효과로. *사회복지경영연구, 4*(1), 47-74.
- Kim, H. K. (2006). *The relations among mother's parenting efficiency, children's self-efficiency,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Focused on social stratum*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 국문: 김혜경(2006).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Kim, H. S. (2015). *The effects of maternal emotional expressiveness, maternal attitude toward preschooler'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on the kindergarten adjust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국문: 김혜수(2015). 어머니의 정서표현 및 수용태도와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유치원

적응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Kim, I. A., & Park, H. J. (2019).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maladjusted children in Korea.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8), 1-9. 국문: 김인애, 박혜정(2019). 부적응 유아 관련 국내연구동향 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8), 1-9.
- Kim, M. R., & Shin, Y. R. (2017). Differences of adjustment and problem behaviors based on play behavior clusters of preschoolers.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11(1), 265-285. 국문: 김미라, 신유림(2017). 유아의 성별에 따른 놀이행동 군집별 유아교육기관 적응 및 문제행동의 차이 분석. *육아정책연구*, 11(1), 265-285.
- Kim, S. Y., Kim, S. H., & Ahn, M. Y. (2016). The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elf-efficacy and young children's ego-resilience on their children's adjustment to educational institution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8), 397-406. <http://dx.doi.org/10.5762/KAIS.2016.17.8.397> 국문: 김소영, 김성혁, 안미영(2016).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유아의 자아탄력성 및 유아교육기관 적응과의 관계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8), 397-406.
- Kim, Y. H. (1995). *The types of playfulness in Korean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oung Women's University. 국문: 김영희(1995). **아동의 놀이성 군 확인과 관련 변인 탐색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Kim, Y. H. (2013).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s and mothers' playfulness o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Education Science*, 44(3), 217-240. 국문: 김영희(2013). 유아 및 어머니의 놀이성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4(3), 217-240.
- Kim, Y. H., & Kim, K. S. (2012). Relationship among mother-teacher relationship, young child-teacher relationship, and young child's adjustment difficulties in childcare center. *Journal of Children's Media & Education*, 11(1), 87-104. 국문: 김유환, 김경숙(2012). 어머니-교사관계, 유아-교사관계 및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문제 간의 관련성. *어린이미디어연구*, 11(1), 87-104.
- Kim, Y. H., Kang, G. S., & Han, S. Y. (2008). Effects of childcare teacher's self-efficacy and teacher - child relationship on young children's adjustment to childcare centers -.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6(5), 73-86. 국문: 김영희, 강기숙, 한세영(2008).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교사 - 유아관계가 유아의 보육시설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5), 73-86.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64-877.

<https://doi.org/10.1037/0022-3514.58.5.864>

- Kwon, H. K. (2009). A study of young children's interactive peer play with relationship of children's self-efficacy and social competence.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3*(6), 391-410. ㉮ 국문: 권희경(2009).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유아의 자아효능감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3**(6), 391-410.
- Ladd, G. W., & Price, J. M. (1987). Predicting children's social and school adjustment following the transition from preschool to kindergarten. *Child Development, 58*(5), 1168-1189. <https://doi.org/10.2307/1130613>
- Lazarus, R. S. (1976). *Patterns of adjustment*. McGraw-Hill.
- Lee, J. S. (2011). *A multi-level data analysis on the effect of variables of teachers and young children on young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uksung Women's University. ㉮ 국문: 이정수(2011). **유아 및 교사변수가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층 자료 분석**. 박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 Lee, S. J. (2020).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peer competence and playfulness in young children - mediation effect of father's participation in parent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Eui University. ㉮ 국문: 이수정(2020). **유아의 정서지능이 또래유능성과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 Lieberman, J. N. (1965). Playfulness and divergent thinking: An investigation of their relationship at the kindergarten level.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07*(2), 219-224. <https://doi.org/10.1080/00221325.1965.10533661>
- Moon, Y. K. (2016). The effect of preschooler's sex, playfulness and teacher-child interaction on preschooler's preschool adjustment.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6*(2), 369-390. ㉮ 국문: 문영경 (2016). 유아의 성, 놀이성과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이 만 3세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6**(2), 369-390.
- Oh, Y. K. (2017). *The effects of parents' humor styles on children'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emotional regulation competence: The mediating effect of warm parenting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angmyung University. ㉮ 국문: 오연경(2017). **부모의 유머 스타일이 유아의 정서 표현성 및 정서 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 Park, C. J., & Chung, H. W. (2018). A relationship between teacher-child interaction, parenting attitude and preschool adjustment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child's

- resilience -.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3(2), 1-20. <http://dx.doi.org/10.20437/KOAECE23-2-01> ☞ 국문: 박천진, 정혜원(2018). 교사-유아 상호작용 및 부모 양육태도와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 유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23(2), 1-20.
- Park, E. A. (2012).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playfulness on adjustment to early childhood institut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국문: 박은애(2012). **유아의 기질 및 놀이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Park, I. S. (2011). *The relation of teacher-child relationship perceived by teacher and young child's pre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국문: 박인숙(2011). **교사가 지각한 교사-유아관계와 유아의 유치원 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Park, S. Y. (2010). *The influence of teac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on children'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국문: 박수영(2010). **교사의 정서표현성이 아동의 정서표현성 및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Park, Y. A. (2015). Character strengths of young children and their mother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child care center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5(6), 135-155. ☞ 국문: 박영아(2015). 유아와 어머니의 성격 강점 특성 및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35(6), 135-155.
- Shiota, M. N., Campos, B., Keltner, D., & Hertenstien, M. J. (2004). Positive emotion and the regul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P. Philippot & R. S. Feldman (Eds.), *The regulation of emotion* (pp. 127-155). Erlbaum.
- Song, H. J., & Park, Y. S. (2019). Study of the effects of mother's ego-resilience and nurturing attitude on 3-year-old children's school adaptation media. *Journal of Children's Media & Education*, 18(3), 59-80. <https://doi.org/10.21183/kjcm.2019.09.18.3.59> ☞ 국문: 송화진, 박영심(2019). 어머니의 자아탄력성 및 양육태도가 만3세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8(3), 59-80.
- Song, H. N., & Choi, K. S. (2009). The influence of children's emotional expression and sociability, and their mothers' communication pattern on their prosocial behavior.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7(6), 1-10. ☞ 국문: 송하나, 최경숙(2009). 아동의 정서 표현성과 사교성,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6), 1-10.
- Song, J. M. (2019). *The effect of maternal verbal control patterns on children's*

- decision-making ability and emotional expressive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 국문: 송정민(2019).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의사결정력 및 정서표현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Song, J. S. (2004). A study on variables the related to children's adjustment in early childhood institution.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11(3), 167-189. ㉮ 국문: 송진숙(2004).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의 적응과 관련변인간의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3), 167-189.
- Yeom, M. A., & Moon, H. J. (2008). A longitudinal study on the effects of the transition from early childhood schooling to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8(6), 91-118. ㉮ 국문: 염미애, 문혁준(2008). 유아기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에 따른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에 관한 종단연구. **유아교육연구**, 28(6), 91-118.
- Yu, Y. E.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playfulness.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13(3), 239-258. ㉮ 국문: 유영의(2006). 유아의 정서지능과 놀이성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3), 239-258.
- Yun, J. M., & Lee, J. Y. (2018). The influences of teacher efficacy on infant's adjustment to child care centers: The mediated effect of teacher-infant relationship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14(1), 203-225. <https://doi.org/10.14698/jkcce.2018.14.01.203> ㉮ 국문: 윤정민, 이주연(2018). 교사효능감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사-영아 관계의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4(1), 203-225.
- Zeman, J., & Shipman, K. (1997). Social-contextual influences on expectancies for managing anger and sadness: The transition from middle childhood to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3(6), 917-924. <https://doi.org/10.1037/0012-1649.33.6.917>